

국힘 “광우병 때처럼 선동”...민주 “대통령이 연기 요구해야”

여야, 日오염수 방류 공방 격화
하태경 “민주당 반일·반미 투쟁”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공세 강화
정부 “수산물 수입 연계는 잘못”

여야가 연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1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8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민 대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사무처장 출신으로,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또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효순·미선 사건 때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한미 FTA 때는 ‘맹장염 수술비가 100만원, 감기약이 10만원 된다’, 광우병 때는 ‘미국 차매환자 500만명 중 25만~65만명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선동한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사회적 난동 수준에 가까운 괴담 선동을 해오

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며 “그리고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 국내로 유입된다’, ‘후쿠시마산 명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레아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를 오염수 관련 5대 먹거리 괴담으로 거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의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날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는 한편,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전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의 잠정 보류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해양법제관소 제소와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라”며 “올해 열리는 런던의 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관념적으로 일본 정부와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왜 우리가 앞장서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주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를 연계하려는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된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는 후쿠시마 바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장소가 후쿠시마 바다일 뿐, IAEA 평가의 대상은 분명히 방류 계획상의 오염수의 안전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전자결재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조만간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일 것이라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국힘 방미단 워싱턴 도착...김기현 “약속 지키려 미국 왔다”

5박 7일 현지 일정 시작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방미 대표단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5박 7일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 인근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동포 정책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청 공약 이행을 거론, “윤 대통령은 당선 1년 만에 그 약속을 지켰다. 재외동포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자부심이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외동포청 개청과 관련, “행정 서비스 개선 등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소개했다. 먼저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산으로 모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만 260만명, 전 세계 700만~800만명에

이르는 교포들이 “전 세계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이 되고 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교민들이 각자 거주하는 나라에서 주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국(母國)에서도 힘을 쏟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120년이 지나면서 많은 분이 주류 사회에 진입했다. 의회, 각 주정부, 사법부에 다 진출했다”며 “여기에 더 관심을 쏟을 것이고, (교포들이) 활동할 공간이 넓어지도록 챙기겠다는 게 재외동포청의 의미”라고 밝혔다. 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워싱턴을 방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일을 상기한 뒤 “그때 ‘윤 후보를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감사 인사를 하러 꼭 오겠다’고 했다”며 “제가 작년 4월에 (워싱턴에 다시) 왔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갈 때까지 교민들께서 우리 정부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꼼꼼히 적고 챙겨서 정책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표단은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비도 참배·현화했다. 대표단은 11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한 미국 정·관계 인사들과 연세 회동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한미 핵협약(NCG)과 관련해 논의의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우리 당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한미관계가 단순한 안보 동맹으로서가 아니라 산업 동맹, 경제동맹,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만1540원 vs 9720원...최저임금 기싸움

노동계·경영계 3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

원-972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차이가 현격하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막바지에 치달으면서 노사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